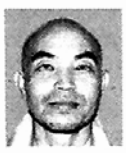
일주문

해인사서 영가천도 법문

성수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은 10일 오전 11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1029일 영가천도' 법문을 한다.

강화서 생명나눔 워크숍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8월 24~25일 강화 코레스코에서 '생명나눔 라이프쉐어 워크숍'을 실시했다.



통도사서 '수행' 주제법문

혜인 제주 약천사 회주는 6일 오후 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수행의 향기'를 주제로 법문한다.

봉축열차 운행공로 표창

성운 풍경소리 대표이사는 8월 27일 봉축열차 운행 공을 인정받아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전북불교대 '법보단경' 강의

지묵 법련사 한주 스님은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전북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법보단경〉을 강의한다.

바른 행동 36년 '참교육'

정년퇴임 동대부고 김상숙 교장

"참교육은 가르치는 이들의 참된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교단에 선지 36년이 지났습니다."

종립 동대부고 김상숙 교장이 8월25일 36년간의 교편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1966년 해동고부터 명성여고를 거쳐 동대부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교장은 특히 2년전 동대부고 교장으로 부임해서는 종립학교답게 아침에 '선정의 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온 신경을 쏟아온 불자.

또 교내에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생태조경 사업을 하고, 빠듯한 살림을 쪼개 학생들이 여름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하는 등 헌신적으로 일해온 김교장은 퇴임후에도 한문이나 예절 등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을 만들어 교육불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발명도 심성 정화하는 수행"

특허 5개 낸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5개의 특허를 낸 밀운 스님이 특허등록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신도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스님들의 당연한 불사이니까요."

최근까지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특허청에 5개의 특허를 낸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회주 밀운스님은 "중생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스님들의 본분사"라며, "등록한 특허들이 필요한 곳에서 상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운스님이 현재까지 등록한 국내 특허는 95년 11월 의장등록(제 172220호)한 '하수구용 배수전'을 시작으로 96년 3월 '하수구(가정)용 배수전'(유사의장등록), 96년 10월 '칫솔'(의장등록 제 18756호), 올해 1월 '촛대의 받침반 구조'(실용신안등록 제 0221201호와 6월 '연등의 프레임 결합구'(실용신안등록 제 0237079호) 등.

이중 불자들의 관심을 끄는 고안은 '촛대의 받침반 구조'. 두께에 따라 세가지 종류의 초를 꽂을 수 있는 이 촛대는 받침반에 물을 부어 촛농이 떨어지더라도 달라붙지 않아 닦아내기에 편하고, 특히 촛대가 가열돼 화제가 발생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 법당에는 긴요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상용화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연등의 프레임 결합구'는 기존의 철사로 만든 연등 골조가 잘 결합되지 않고 빠지는 단점을 플라스틱 재질로 보완한 것. 기존의 철사 구조물이 여덟 군데를 끼우는 반면 이 조립식 플라스틱 연등은 네 군데만을 보턴식으로 끼우도록 해 빠지지 않고 가벼워 보관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가정 및 도로용 '하수구용 배수전'은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를 방지하고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것은 물론 물도 잘 빠져 가정의 하수구와 도시의 맨홀에 설치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95년도에 의장등록한 '칫솔'은 1cm의 간격을 두고 두 군데의 솔을 길게 늘어뜨려 구석구석의 이빨을 잘 닦아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미 90년에 일본 영국 태국 특허청에도 등록된 바 있어 스님의 번뜩이는 생활속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신발 바닥에서 흙을 털다가 잘 닦이는 칫솔을 고안했다"는 밀운 스님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발명은 심성을 정화해 나가는 수행과 다름이 없다"며 생활속의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봉선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도봉산 관통로 강행땐 우수한 생태자원 잃어"

우이령 보존회 운영위장 조상희 씨

환경부가 97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총공사비 3조3천억원) 중 북한산 국립공원지역인 도봉산 구역을 에코브릿지 공법(터널 이외 구간을 터널식 도로로 건설하고 그 위에 풀과 나무를 심는 공법)을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지난 7월 11일 통과시키자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우이령보존회 등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다.

우이령보존회 조상희(51·언론인) 운영위원장은 "98년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산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우회노선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도로공사는 면밀한 검토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며 "9월부터 30여개 피해사찰 스님들을 비롯한 유명인사 213인 선언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도봉산 서북쪽 식생과 경관은 북한산에서 가장 우수하다"며 "특히 서울특별시 관리 야생동식물인 끈끈이주걱과 산개나리 분포지여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 녹지와 보존가치가 뛰어난 국립공원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7천억원이 더 든다는 정확한 비용실사도 나오지 않았으며, 7천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송추에서 양주군 주내면을 지나 의정부시 민락동을 거친 후 덕송IC로 빠지는 우회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장애인 직접 찾아가 치료"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장 지현 스님

"영주지역 불교계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변화하는 첫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8월 28일 경북 영주지역에서 불교계 사상 첫 복지관을 개관한 지현스님(청량사 주지). 스님은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영주와 봉화지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역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복지관 운영 방침을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복지관의 역할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복지관을 찾아 온 장애인들에게 대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다른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돕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스님은 영주시 등록 장애인 수가 3천명을 웃돌고 있어 3백여 평의 복지관 시설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

"장애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복지 불사의 본 뜻을 살릴 수 있고, 가족과 이웃에게 불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포교 불사도 성취한 게 아니냐"는 스님은 "복지관을 수탁한 영주봉화사암연합회 역시 '복지 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있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시설에서 좋은 복지가 나올 수 있다"며, 복지관의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충원과 영주시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산불교 최고지도자 워크숍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는 8월 25~2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부산교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신도회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강선태 회장은 "폭넓은 토론과 신행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부산불교계의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일연국사 사상 학술대회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스님을 기리는 '일연국사 불교사상학술 대회'가 8월 24일 경북 군위군 인각사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일연국사의 생애와 불교사상을 거시적으로 해석하고, 민족 자주를 바탕에 두고 집필된 삼국유사의 역사인식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화사 신도회장에 장영관 씨 선출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8월 28일 총회를 열고 신도회장에 장영관씨(동명상공업사 대표·사진 맨 왼쪽)를 선출했다.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장영관 회장은 "동화사를 중심으로 대구지역을 불심깊은 고장으로 만들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산불교대학 2001학년도 후기 졸업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8월 26일 동산교육회관에서 '2001학년도 하반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63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이번 졸업식은 졸업장 및 공로상 수여, 무진장 스님을 계사로 한 수계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무진장 스님은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여 포교의 역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설정스님 초청 "선가귀감" 특강

수덕사 발심회에서는 설정스님을 모시고 선가귀감을 보고자 합니다. 선원에서, 때로는 소임지에서 바쁜 나날을 지내며 정진의 마음을 잡고 지내다보면 옛 선사스님들의 어록을 접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록을 보아도 글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발심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설정스님을 모시고 선 어록을 보아온 바 이제 좋은 인연이 익어져 "선가귀감"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방의 뜻 있는 모든 스님들에게도 이 귀한 인연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수희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강의동참안내

◎ 일 시 : 불기 2545(2001)년 9월 9일 ~ 13일
(9일 오후 6시에 입방접수 - 강의는 10일 부터 합니다)
◎ 장 소 : 덕숭총림 수덕사 왕하정루
◎ 수강료 : 3만원, 교재비포함
◎ 준비물 : 가사, 필기도구 및 개인용품
◎ 문의처 : 041)634-6777, 632-8917(용봉사)

■ 주 관 : 수덕사 발심회 ■ 후 원: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 복 :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 삼 :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 방 :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福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춘추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하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장 삼		조계종	200,000
		태고종	200,000
손가방		大	28,000
		小	23,000
바 랑			30,000

※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생산함
※ 맞춤 전문으로 생산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용 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